



전통문화 체험한 ‘2013 서울조합 경영자세미나’ “존경받는 리더 되기 위해선 선비정신 필요”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13년도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이충원 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인쇄인 300여명이 참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6월 14일 오전 7시 30분 종합운동장은 서울인쇄조합에서 주최한 2013 경영자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인쇄인들로 가득 찼다. 300여명의 인쇄인들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지각하는 사람 하나없이 모두 시간을 지켰으며, 인쇄인들을 태운 9대의 대형버스는 8시 정각에 경상북도 안동을 향해 출발했다. 2013 경영자세미나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소수서원, 박물관, 선비촌, 부석사 등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의 집성지인 경북 안동

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로 이뤄졌다. 경영자세미나 역시 유교 문화에 대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는데,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선비정신과 현대인의 삶’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유교정신은 오래되고 고루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철휘 국무총리실 연설비서관은 ‘리더의 말과 글’이라는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했다.



인사말을 하는 남원호 이사장



강연을 하는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강연을 하는 김철휘 국무총리실 연설비서관

김병일 원장 “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

최근 강조되는 리더십은 존경받는 리더십이다. 우리는 예부터 존경받는 리더십을 생활화했는데,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다음 솔선수범과 언행일치를 통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식만을 중시해 남보다 앞서나가기 좋아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리더가 드물다. 나의 행복한 삶과 국가 사회의 화합 발전을 위

해 술선수범의 선비정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리더가 지켜야 할 선비정신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으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칭찬은 형식적, 희화적이지 아닌 분명하고,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가급적 충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철휘 연설비서관 “리더의 말과 글”

리더가 말을 잘 하려면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해야 한다. 선입견에 빠져서는 안되며, 듣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해야 한다. 또한 멋 있는 말로 꾸미려 해서는 안된다.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하며,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구성안을 설계해야 하는데, 인사, 메시지, 마무리 단계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형용사와 같은 수식어에 매달리거나 명언이나 속담을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문장은 짧게,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담아야 하며, 마무리는 청중의 예상보다 빨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설하고, 녹음하고, 들어본 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이번 경영자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유교문화의 집성지인 안동의 주요 유적지도 여러 곳 방문했다. 첫날 방문한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 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로, 기와집과 초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회마을은 총 127개 가옥, 437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127개 가옥 중 12개 가옥이 보물 및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됐다. 현재 150여 호에서 거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다. 수령이 60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중심부에 해당한다. 하회(河回)라는 마을 이름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됐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지어진 서원으로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져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이 낙향 후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지었으며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선생이 직접 설계했다고 전해진다.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건립돼 추증된 사당과 서원이다. 1575년(선조 8)에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 편액을 하사받음으로써 사액(賜額)서원으로서 영남유학의 총본산이 됐다.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중 하나인 부석사

둘째날에는 소수서원, 박물관, 선비촌에 이어 부석사를 돌아봤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때 의상대사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인 무량수전으로 유명하다. 부석사는 무량수전(국보 18호)외에도 조사당(국보 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45호), 조사당 벽화(국보 46호),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17호) 등 국보 5점과 3층 석탑, 석조여래좌상, 당간지주 등의 보물, 원용국사비, 불사리탑 등의 지방문화재를 비롯한 삼성각, 취현암, 범종루, 안양문, 응향각 등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자세미나에 참가한 한 인쇄인은 “유교문화의 집성지인 안동에 와 보니 우리나라의 기록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인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우리 인쇄인들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1~2.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는 인쇄인과 단체장 3. 하회마을 만송정 숲길을 걷고 있는 인쇄인들 4. 도산서원 전경 5. 부석사 전경 6.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인쇄인들